

발표자 선생님들의 숙고와 제안이 담긴 논문을 짧은 시간 안에 읽게 되어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 시민으로서 상식적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 언급 드리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더 관심과 관련성 있는 분야인 발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제3주제, 아이돌 선정물의 유통과 소비양식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김희경 박사님)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먼저 아이돌 선정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개념적 정의에 앞서 일례가 소개되었으면 더욱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론까지 살펴본 뒤, 저 스스로 아이돌 선정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서, 이 논의들이 다른 청소년유해물 관련 심의나 법, 제도 등을 논의한 글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지요.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 움짤이나 직캠 영상을 포털에서 찾아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고, 누구나 쉽게, 곧바로 유튜브로 이동해 볼 수 있었으며, 이 정도만 보는 것도 충격이 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에, 아이돌 선정물에 대한 언급 없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된 것으로 이해됐지요. 따라서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항시 노출되는 영상들을 기존의 청소년유해물 관련 입법만으로는 유통과 소비를 제약하거나 처벌할 수 없겠구나 하는 점에 더욱 더 동의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고 논의되고자 하는 의미있는 이유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주제와 관련한 최신이자 다양한 자료, 실태, 분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은 물론 아이돌 선정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아이돌 콘텐츠 유통방식, 이용현황, 자극적 직캠 문화의 폐해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아이돌 소비 시장의 특성과 팬덤, 그 차이 등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지요. 물론 시대적으로 살펴본 내용에서는 현재적 시점에서 논의하기엔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별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핵심인 규제관련 법제도 분석과 쟁점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핵심적으로 서술해주셨습니다. 일례로 청소년 유해물 규정에서 상대성, 다양성, 유동성 여부, 심의기관의 다양성, 심의 기준의 내용 및 추상성, 선정물 규제의 낮은 실효성 등에 관한 검토는 주장이 아니라 쟁점 되는 영역을 검토 영역으로 서술한 점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 심의 기관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추후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최종단위로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떤 가 생각해 보았구요.

또한 결론을 통한 요약은 앞선 논의와 서술들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본문 서술의 쟁점들이 일정부분 연구자가 지지하는 영역으로 서술되어,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돌의 선정물 참여에 대한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과 제작·기획사들의 책무, 디지털유통관련 법 개선안 등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돌 선정물을 제작·유포시키는 개인들에 대한 규제나 처벌 조항 역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의 아이돌 선정물-움짤, 직캠 등-은 아동·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소비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화면 속 여성 아이돌 주체들의 평범한 행동이나 몸짓 하나도 마음대로 편집하고 제작,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동영상인 것이지요. 제작·기획사의 선정적 안무나 의상, 표정 등의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구나 움짤이나 직캠으로 선정물을 만들 의도가 있다면, 포르노 영상의 대상주체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인격살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에 대한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은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나 처벌도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표현물 속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혐오, 모든 반인권적 문제는 최종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도록 논의되고, 마련되며,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끝>